

■ 경찰·조폭·요리사로… 스크린 '명품 조연' 시대



'세븐 데이즈' 박희순

'섹즉시공 2' 신이

'스카우트' 박철민

주연보다 더 빛난다

박철민·김상호 감칠맛 나는 연기… 박희순·이철민 등도 급부상



'식객'의 김상호

영화를 이끌어 가는 건 주연배우들이지 만 그들을 받쳐주는 든든한 조연들이 없다면 영화의 재미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영화배우 이문식과 유해진은 감칠맛 나는 조연에서 주역의 자리에 우뚝 선 배우들이다. 이후 드라마 '태왕사신기'에도 출연하고 있는 오광록과 오달수, 손병호 등이 그 자리를 물려 받았고, 최근에는 새로 운 '명품 조연'들이 스크린을 누비고 있다.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스릴러 영화 '세븐데이즈'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박희순이라는 배우를 주목했다. '월드 스타' 김윤진이 맡은 변호사 유지현의 친구로 출연한 박희순은 조금은 걸렁 걸렁한 형사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긴박감 넘치는 영화에서 박희순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기와 유머는 관객들에 여유를 주며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영화팬들에게는 많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희순은 이미 연극판에서는 '연기 잘 하는 배우'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 수애 주연의 영화 '가족'에서 악랄한 조폭 연기를 보여줬던 박희순은 '남극일기' '러브 토크' 등에도 출연했었다. 최근에는 예지원 주연의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에 얼굴을 내밀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스카우트'에서는 박철

만아 능글맞은 연기를 보여준 주진모는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연기자. 지난해 흥행 대박을 터트린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와 겨루는 짹거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주진모는 '바르게 살자'에서도 인질 중 한명으로 출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아들' '거룩한 계보' '박수 칠 때 떠나라' 등 장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에는 모두 출연, 눈도장을 찍었던 이철민은 '바르게 살자'에서 역시 인질 중 한명인 형사 역으로 출연,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다.

300만 관객을 향해 질주중인 '식객'에서는 '맛있는 라면'을 짖어기 위한 비법을 찾는 요리사로 등장한 김상호의 연기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열린 대한민국영화상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김상호는 '범죄의 재구성'의 휘발유, '타짜'의 박무식 역을 통해 눈도장을 찍은 케이스. 이후 이준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즐거운 인생'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기러기 아빠로 출연한 김상호는 '식객'에서 오랜만에 영화에 등장한 정은표와 함께 극에 웃음을 주는 코믹한 연기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13일 개봉을 앞둔 '섹즉시공 2'에는 43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섹즉시공 1'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줬던 신이, 유체영 등이 그대로 출연, 또 다른 웃음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게 좋은' 우유부단한 지점장 역을

한국 인디영화 삼색전

광주극장 20일까지 '판타스틱 자살 소동' 등 상영

1억 5천만원으로 제작한 아일랜드 인디 영화 '원스'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영화 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우리나라의 인디 영화 세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20일까지 '한국 인디영화 삼색전'을 통해 관객분가상을 수상한 영화,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상영작으로 선정됐던 '친애하는 로제타'의 양해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저수지에서 건진 치터'는 학교폭력, 외톨이, 인터넷 마녀 재판, 청부살인 카페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관심사를 다룬 작품이다. 독립영화계의 스타로 꾹히는 임지규가 두 편 모두에서 주연을 맡은 점도 눈길을 끈다.

2007부산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에 초청됐던 '은하해방전선'은 초짜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상상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광주극장은 20일까지 '한국 인디영화 삼색전'을 통해 관객분가상을 수상한 영화, 칸 국제영화제 단

편 경쟁 부문 상영작으로 선정됐던 '친애하는 로제타'의 양해훈 감

독립영화계의 스타로 꾹히는 임지규가 두 편 모두에서 주연을 맡은 점도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타스틱 자살 소동'

흥겨운 노래와 춤 뮤지컬 영화

주목! 이 영화

'헤어스프레이'

1988년 영화로 만들어졌고 2002년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제작됐던 작품으로 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뮤지컬 영화다.

'토요일밤의 열기' '그리스' 등 뮤지컬 영화에 출연했던 존 트리볼타가 엄마역으로 출연하며 미셸 파이퍼, 니키 블론스키 등이 호흡을 맞췄다.

동뚱한 몸 때문에 집안에 들어박혀 사는 엄마와 작은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트레이시는 '코니 콜린스 쇼'에 열광하는 여고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있는 트레이시는 '코니 콜린스 쇼' 오디션에 참가, 새 멤버로 낙점 받는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방송국 국장 벨마의 딸 앤비를 제치고 최고 인기스타로 급부상한 트레이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굿모닝 볼티모어', '벨소리가 들려' '웰컴 투 더 식스티스' 등 흥겨운 뮤지컬 넘버가 흥을 돋운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헤어스프레이



존 트리볼타,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뮤지컬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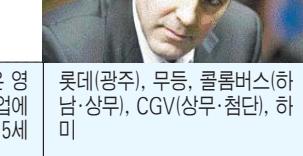
데스 센텐스



아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복수극.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무등시네마

マイクロクライエント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법을 회사와 거대 기업에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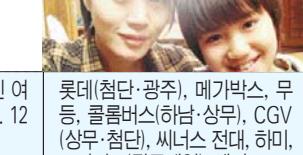
어거스트 러쉬



11살 소년의 음악을 통한 부모 찾기 여정. 전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미스(광주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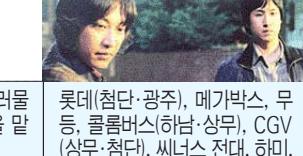
열한번째 엄마



12살 소녀 재수와 청녀 출신 여자가 그리는 아름한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프리미스(광주제일), 엔터

우리 동네



모방살인을 소재로 한 스릴러를

로 만들었고, 뮤지컬 영화로도 관람가.

히트맨



동명의 인기 비디오 게임을 영화로 옮긴 작품.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쏘우 4



시리즈물로 만들어져 저 인기를

모았고 있는 첫소피즘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베오울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세븐 데이즈



7일간 한 벌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물. 18세 이상 관람가.

색 계



리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애정물로 양조위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